

- 답안지에 인적사항(학년, 반, 번호, 성명) 및 과목명을 정확히 기입(표기)한 후 답안을 작성하시오.
- 물음에 맞는 답을 골라 컴퓨터용 사인펜을 이용하여 OMR 카드 선택형 답안지의 해당란에 '1'표 하시오.

배점	선택형	24문항	100점 만점
----	-----	------	---------

1. 다음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4.5점]

[표준발음법]

제9항 받침 'ㄱ, ㅋ, ㆁ, ㅅ, ㅆ, ㅈ, ㅊ, ㅌ, ㄷ, ㅌ'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ㅌ]으로 발음한다.

제10항 겹받침 'ㄲ, ㅋ, ㆁ, ㅅ, ㅆ, ㅈ, ㅊ, ㅌ, ㄷ, ㅌ'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ㄷ, ㅌ]으로 발음한다.

제11항 겹받침 'ㄴ, ㄷ, ㄹ'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ㄷ, ㅌ]으로 발음한다.

제13항 홀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X

제14항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엎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함.)

제23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ㅌ), ㄷ(ㅅ, ㅆ, ㅈ, ㅊ, ㅌ), ㅌ(ㅌ, ㄷ, ㄹ, ㅅ, ㅆ, ㅈ, ㅊ, ㅌ)'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ㅌ, ㅅ, ㅆ'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제24항 어간 받침 'ㄴ(ㄴ), ㄹ(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ㅌ, ㅅ, ㅆ'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제25항 어간 받침 'ㄴ, 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ㅌ, ㅅ, ㅆ'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① '웃'은 제9항에 따라 [으]으로, '웃 안에'는 제9항과 제13항에 따라 [오단에]로 발음한다. X 은 2 단어
- ② '값과'는 제10항과 제23항에 따라 [갑과]로, '값은'은 제14항에 따라 [갑슨]으로 발음한다. X
- ③ '활다'는 제10항과 제25항에 따라 [할다]로, '활아'는 제14항에 따라 [할타]로 발음한다.
- ④ '닭을'은 제13항에 따라 [다글]로, '닭장'은 제11항과 제23항에 따라 [다짱]으로 발음한다.
- ⑤ '겨안다'는 제24항에 따라 [겨안파]로, '여덟과'는 제10항과 제25항에 따라 [여덟파]로 발음한다. X

2. 다음을 참고하여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9점]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음운이라 한다. 음운은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으로 나눌 수 있다.

국어에서 음운은 조건에 따라 다른 음운으로 바뀌거나 없어지기도 한다. 음운의 변동은 발음을 편하게 하려고 일어나는 현상으로, 음운 변동과 발음, 표기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소리 나는 대로만 적으면 상대방이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의사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정해 놓았다.

<보기>

ㄱ. '문'과 '물'이 'ㄴ'과 'ㄹ'에 의해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통해 음운 자체에도 뜻이 있음을 알 수 있다.

ㄴ. '밥'이 [밥]으로, '밥물'이 [밥물]로 발음되는 것은 받침 'ㅂ'이 발음되는 음운의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ㄷ. 발음을 쉽게 하기 위해 '국민'을 [궁민]으로 발음하지만 이를 실제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X

ㄹ. 사람의 '눈'은 '[눈]'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눈:]'으로 발음하는 것을 통해 음운 이외에도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요소가 더 있음을 알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다음 밑줄 친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적절한 것은? [4.4점]

어떤 단어들은 두 가지 이상의 음운 변동이 단계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음운 변동의 종류와 순서가 (가)~(다)와 같은 단어를 더 찾아 볼까요?

- (가) 묻히다 → ^{문치} [무치다] → ^{무치기} [무치다]
(나) 값지다 → [갑지다] → [갑짜다]
(다) 늦여름 → [느여름] → [느너름] → [느너름]

- | | (가) | (나) | (다) |
|---|------|------|-----|
| ① | 굳히다 | 값다 | 삿일 |
| ② | 달히다 | 값다 | 홀이불 |
| ③ | 살살이 | 활네 | 콩엇 |
| ④ | 견히다 | 취범 | 한여름 |
| ⑤ | 직행열차 | 늪등글다 | 꽃잎 |

4. 다음을 참고하여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4.4점]

모음을 크게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중모음은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되어 형성된다.

반모음은 소리를 내는 방법이 모음과 비슷하지만 자음처럼 모음과 결합해야만 발음될 수 있으며, 반모음에는 평순 반모음 'i[j]'과 원순 반모음 'i/ɥ[w]'이 있다.

모음 'ㅣ'나 'ㅓ/ㅜ'가 다른 모음과 결합하여 이중모음이 되는 현상을 모음 축약이라고 하며, 두 개의 모음이 만났을 때 한 개의 모음이 탈락하는 현상은 모음 탈락이라고 한다.

혀의 위치	혀의 앞위 위치		혀의 앞낮 위치	
	입술모양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후설 모음
고모음		ㅣ	ㅓ	ㅗ
중모음		ㅕ	ㅛ	ㅛ
저모음		ㅗ	ㅜ	ㅜ

- ① '두었다'는 모음 'ㅜ'와 'ㅣ'가 연달아 만났으므로 하나의 모음이 탈락하여 '뒸다'가 된다. ~~두었다~~ X
- ② '담그--아'는 모음 'ㅣ'와 'ㅏ'가 만나서 하나의 모음으로 축약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X
- ③ '네'는 'ㅏ'를 발음할 때보다 입을 더 크게 벌린 상태에서 혀의 높이를 낮게 하여 발음한다. 네 게 기 ㅓ ㅕ ㅗ ㅛ ㅜ
- ④ '네'는 원순 반모음과 결합한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동안 혀의 위치나 입술의 모양이 변하게 된다.
- ⑤ '나'는 두 개의 단모음 'ㅣ'와 'ㅏ'가 결합한 형태이므로 혀의 최고점의 위치를 앞에서 뒤로 이동시키면서 발음한다.

5. 단어의 발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4.2점]

<보기>

- ㄱ. '꽃망울'을 발음하면 받침 'ㅌ'은 섹입천장과 혀 뒤 사이에서 마찰을 일으키며 나는 소리가 된다.
- ㄴ. '뽕대다'의 자음들은 혀에서 나온 공기의 흐름을 완전히 막았다가 순간적으로 터뜨리며 발음해야 한다.
- ㄷ. '미달이'에서 받침 'ㄷ'은 뒤에 오는 모음의 영향으로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바뀐 소리로 발음된다.
- ㄹ. '침략'을 발음하면 '략'의 초성 'ㄹ'은 코로 통하는 공간길을 열어 그 속으로 공기를 통과시키며 내는 소리로 바뀐다.

- ① ㄱ, ㄷ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ㄷ, ㄹ

6.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4.0점]

- ① 옥수수를 깨끗이 씻어서 술에 안쳤다. O
- ② 떡국떡은 반듯이 썰어야 보기에 좋다. O
- ③ 나이가 들어서야 발현되는 능력도 있다. O
- ④ 서초의 구김이 심해서 다리미로 달여 주름을 폈다. X
- ⑤ 우리는 각자가 지향하는 목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O

7. 다음을 참고하여 <보기>의 단어에 드러난 음운 변동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4.3점]

음운 변동에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인 '㉠ 교체',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인 '㉡ 탈락', 없던 음운이 새로 생기는 현상인 '㉢ 첨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현상인 '㉣ 축약'이 있다.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면 조음 위치나 조음 방법 중 하나가 변하거나 둘 다 변하기도 하며, 음운의 개수가 달라지기도 한다.

<보기> 섹년회 생연필			
㉠ 싫어	㉡ 뽕는다	㉢ 색연필	㉣ 밟고
㉤ 파랗다	㉥ 매일	㉦ 불이다	㉧ 넓죽하다

- ㉠ ㉡와 ㉢는 ㉣에 의해 음운의 개수가 줄어든다.
- ㉡ ㉢에는 ㉣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음운이 하나 있다. X
- ㉢ ㉣와 ㉤는 ㉥에 의해 음운의 개수가 줄어든다. X
- ㉣ ㉦와 ㉧는 ㉥에 의해 음운의 개수가 늘어난다. X
- ㉤ ㉥는 ㉦, ㉧, ㉨이 모두 일어나지만 음운의 개수는 달라지지 않는다. X

ㅏ ㅓ ㅗ
ㅕ ㅛ ㅛ
ㅗ ㅛ ㅛ
ㅗ ㅛ ㅛ

8. 다음의 한글 맞춤법 규정에 해당하는 예시로 적절한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4.1점]

[한글 맞춤법]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제6항 'ㄷ, ㅌ' 받침 뒤에 중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ㅈ, ㅊ'으로 소리 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는다.

제11항 한자음 '랴, 려, 레,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다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렐, 룰'은 '엘, 울'로 적는다.

제51항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제56항 '-더라, -던'과 '-든지'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는 '-더라, -던'으로 적는다.
2.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키지 아니하는 뜻을 나타내는 조사와 어미는 '(-)든지'로 적는다.

확률

규정

예시

- ㉠ 제2항 운동화 한 켤레, 천원 짜리 지폐 X
- ㉡ 제6항 굴이, 만이, 마디, 전디다 X
- ㉢ 제11항 양심, 유행, 합격율, 백분율 X
- ㉣ 제51항 틱틱이, 술직이, 헛되히, 깨끗히 X
- ㉤ 제56항 말 잘하던데, 가든지 오든지 O

[9~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편견

편견이란, 이전 혹은 실제 경험에 근거하지 않고 어떤 사람과 집단을 무조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감정을 말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적대감과 혐오감을 낳게 하는 부정적 편견이다. 이러한 편견은 다른 감정과 마찬가지로 대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주체의 심리적 상태의 문제이다. 따라서, 왜 편견이 발생하는가를 인식하는 문제는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편견에 관한 심리학적 이론은 ① 내 집단 편애설, ② 욕구 불만설, ③ 성격설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누구나 자기가 소속된 집단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되는 것을 자기 집단 기호성이라고 한다. 자기 가정, 자기 고향, 자기 출신 학교 등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호의를 가지는 것 자체는 별로 비판받을 일이 아니지만, 자기 집단에 대한 편견 때문에 자기가 속하지 않은 집단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특히, 이해관계로 대립되어 있는 집단에 대한 낮은 평가는 혐오감과 경멸을 낳게 한다. 집단 성원이 그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대립적이 된다.

또 사람은 불만이 쌓이게 되면 공격적인 행동으로 그 불만을 해소하려 한다는 욕구 불만 공격 가설에 기초하여 편견을 설명하는 사람도 있다. 사회생활이 자기 생각대로 되고 욕구가 잘 충족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간단히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계속 장애와 방해에 부딪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욕구 불만이 높아지면 사람은 공격적으로 된다는 것이 욕구 불만 공격 가설이다.

욕구 불만을 일으키게 하는 대상에게 직접적으로 공격 행동이 향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 태도이다. 그러나 실제적인 공격 행동이 즉각 일어나지 않는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반격이 예측되기 때문이다. 자기에게 욕구 불만을 주는 사람은 자기보다 지위가 높고 힘이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다. 그런 사람을 공격하면 목이 몇 개가 있더라도 부족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욕구 불만에 의한 공격은 자기보다도 약하고 자기에게 공격을 가해 오지 않을 듯한 약자, 즉 희생양에게로 향하게 된다. 어떤 사람은 자기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다만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공격 대상이 되고 만다. 그런 이유 없는 공격 행동을 한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희생양의 결점과 약점을 더욱 비난하고 경멸하게 된다.

그러나 욕구 불만을 가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약한 사람을 경멸하는 것도 아니며, 욕구 불만을 견뎌 내는 힘도 사람에 따라 다르다. 사람에 따라 편견적 감정을 가지기 쉬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편견을 가지기 쉬운 성격에 관한 연구가 행해지고 있는데, 이 연구에 의하면 안정감이 부족하고 자아가 약한 사람이 편견을 가지기 쉽다고 한다. 그들은 대개 부모에 대한 혐오감, 완벽주의, 책임을 외부로 전가하는 경향, 권위주의적 경향 등의 특성을 지닌다고 한다. 특히,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은 편견의 중심적 사고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성격의 사람들은 권력을 선호하며,윗사람에게는 굴신거리면서도 아랫사람에게는 권위를 내세우는 등 자기가 가진 힘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 한다.

이처럼 편견의 감정은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문제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감정을 가진 사람의 감정적 경향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대상에 대해 모든 정보를 얻기 전에 벌써 어떤 감정을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집단에 대한 감정에는 적든 많은 편견이 포함된다. 따라서 편견을 아예 갖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편견의 원인이 자신 내부에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비인간적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까지 파괴하는 편견이라는 감정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9. 윗글의 설명 방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4.5점]

<보기>

- ☒ 어떤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 ☒ 하나의 사물이나 사실을 그 구성 요소나 역할에 따라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 ☒ 어떤 낱말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이하는 방식으로 설명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 전문가의 견해를 중심으로 현상의 원인을 제시하고 그로 인한 결과를 다양한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윗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4점]

- ① 편견이 발생하는 원인은 외부의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부에 있다. ○
- ② 편견은 인간 내부의 억눌린 감정이 강자보다는 약자를 향해 왜곡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
- ③ 욕구 불만의 상태에 있는 사람 중에 약한 사람을 공격하거나 경멸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욕구 불만을 참고 견디는 사람도 있다. ○
- ④ 상대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여러 정보를 반복적으로 접하게 됨으로써 이해관계로 대립되는 상대 집단에 대한 혐오와 경멸의 감정이 나타나게 된다. ○
- ⑤ 자신이 가진 힘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상급자에게는 아부하고 하급자에게는 막말을 하는 등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편견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

11. ㉠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4.3점]

- ㉠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급여가 적고, 승진의 기회도 적게 주어졌다.
- ② 업무의 성격과 특성으로 인해 특정 연령대의 입사를 제한하는 신입사원 모집 공고를 게시했다. ✕
- ③ 최고의 교육학자가 최고의 교사는 아닐 수 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과 학문을 연구하는 것은 다른 능력과 태도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
- ④ 버스 정류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칼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
- ⑤ 16세기 당시 경제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화폐 수요도 함께 늘었는데, 순수 금화와 은화 대신 금과 은의 함량이 적은 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순수 금화와 은화는 화폐 시장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

[12~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성북동(城北洞)으로 이사 나와서 한 대엿새 되었을까, 그날 밤 나는 보던 신문을 머리맡에 밀어 던지고 누워 새삼스럽게 "여기도 정말 시골이로군!" 하였다.

무어 바깥이 컴컴한 길 처음 보고 시냇물 소리와 썩 - 하는 술바람 소리를 처음 들어서가 아니라 황수건이라는 사람을 이날 저녁에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말 몇 마디 사귀지 않아서 곧 못난이란 것이 드러났다. 이 못난이는 성북동의 산들보다 물들보다, 조그만 지름길들보다 더 나에게 성북동이 시골이란 느낌을 풍겨 주었다.

서울이라고 못난이가 없을 리야 없겠지만 대저에서는 못난이들이 거리에 나와 행세를 하지 못하고, 시골에선 아무리 못난이라도 마음 놓고 나와 다니는 때문인지, 못난이는 시골에만 있는 것처럼 흔히 시골에서 잘 눈에 뜨인다. 그리고 또 흔히 그는 태고 때 사람처럼 그 우둔하면서도 천진스런 눈을 가지고, 자기 동리에 처음 들어서는 손에게 가장 순박한 시골의 정취를 돋워 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날 밤 황수건이는 열 시나 되어서 우리 집을 찾아왔다. 그는 어두운 마당에서 꽤 지르는 소리로,

"아, 이 때가 문안서....."

하면서 들어섰다. 잡담 제하고 큰일이나 난 사람처럼 건넌방 문 앞으로 달려들더니,

"저, 저 문안 서대문 거리라나요, 어디선가 나오신 댁입쇼?"

한다.

보니 함비*는 안 입었으되 신문을 들고 온 것이 신문 배달부다.

"그렇소, 신문이요?"

"아, 그런 걸 사흘이나 저, 저 건너쪽에만 가 찾았습쇼. 제가....."

하더니 신문을 방에 들이뜨리며,

"그런데쇼, 왜 이렇게 죄죄만 집을 사구 와 줬쇼. 아, 내가 알았더라면 이 아래 큰 개와집도 댔을걸입쇼....."

한다. 하 말이 황당스러워 유심히 그의 생김을 내다보니 눈에 얼른 두드러지는 것이 뺨뺨 짙은 머리로되 보통 크다는 정도 이상으로 골이 크다. 그런 데다 옆으로 보니 쟁구 대가리다.

"그렇소? 아무튼 집 찾느라고 수고했쇼."

하니 그는 큰 눈과 큰 입이 일시에 히죽거리며,

"뭇입쇼, 이게 제 뭇입입쇼."

하고 날레 물러서지 않고 목을 길게 빼어 방 안을 살핀다. 그러더니 묻지도 않는데,

"저는입쇼, 이 동네 사는 황수건이라 합니다....."

하고 인사를 붙인다. 나도 깃듯이 내 성명을 대었다. 그는 또 싱글벙글하면서,

"대엔 개가 없구면입쇼."

한다.

"아직 없쇼."

하니

"개 그까짓 거 두지 마십쇼."

한다.

"왜 그렇소?"

물으니, 그는 얼른 대답하는 말이,

"신문 보는 집엔입쇼, 개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한다. 이것 재미있는 말이다 하고 나는 "왜 그렇소?" 하고 또 물었다.

"아, 이 뒷동네 은행소에 댕기는 집엔입쇼, 망아지만 한 개가 있는 댕쇼, 아, 신문을 배달할 수가 있어얍쇼."

"왜?"

"막 깨물라고 댕비는걸입쇼."

한다. 말 같지 않아서 나는 웃기만 하니 그는 더욱 신을 낸다.

"그놈의 개 그저, 한번, 양떡을 댕여 대야 할 텐데....."

하면서 주먹을 부르대는데 보니, 손과 팔목은 머리에 비기어 반비례로 작고 가느다랗다.

<중략>

"그레 삼산학교에 다시 들기만 기다리고 있소?"

물으니 그는

"돈만 있으면 그까짓 거 누가 고스카이* 노릇을 합쇼. 밀천만 있으면 삼산학교 앞에 가서 뺨뺨이 장사를 할 텐데쇼."

한다.

"무슨 장사?"

"아, 방학 될 때까지 차미* 장사도 하급쇼, 가을부터 군밤 장사, 왜떡 장사, 습자지, 도화지 장사 막 합쇼. 삼산학교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좋아하겠쇼. 저를 선생님보다 낮게 치는데쇼."

한다.

나는 그날 그에게 돈 삼 원을 주었다. 그의 말대로 삼산학교 앞에 가서 버섯이 참외 장사라도 해 보라고. 그리고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주지 않아도 좋다 하였다.

그는 삼 원 돈에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뛰어나갔다. 그리고 그 이튿날,

"선생님 잡수시라급쇼."

하고 나 없는 때 참외 세 개를 갖다 두고 갔다.

그러고는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 집에 일췌하지 않았다.

들으니 참외 장사를 해 보긴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 밀천만 까먹었고, 또 그까짓 것보다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그의 아내가 달아났단 것이다. 저희끼리 금실은 팬찮았건만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 달아난 것이라 한다. 남편만 남 같으면 따로 살림 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이나 평생 동서 밀에 살아야 할 신세를 생각하고 달아난 것이라 한다.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다. 밤인데 달포 만에 수건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웬 포도를 큰 것으로 대어섯 송이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에 들고 들어왔다. 그는 뺨뺨거리며

"선생님 잡수라고 사 왔습쇼."

하는 때였다. 웬 사람 하나가 날새게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로 수건이의 먹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 하고 끌려 나갔다.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 온 것을 직각하였다. 쫓아 나가 매를 말리고 포도값을 물어 주었다. 포도값을 물어 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다섯 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 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한 알을 가지고도 오래 입안에 굴러 보며 먹었다.

- 이태준, 「달밤」 -

* 함비 : 일본말로 '등이나 깃에 상호가 찍힌 겹옷'을 이르는 말.

* 고스카이 : 소사(小使)의 일본어. 관창, 회사, 학교 등에서 잔심부름을 시키기 위해 고용한 사람.

* 차미 : '참외'의 방언.

1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7점]

- ① 인물들의 직업과 복장, 말투 등을 통해 작품의 사회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
- ② 중심 인물의 특성이 외양 묘사, 대화와 행동의 묘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
- ③ 주인공은 포도를 훔친 사건을 계기로 내면적 변화를 겪는 입체적 인물의 모습을 보인다. ✕
- ④ 주변 인물과 중심 인물에 대한 두 개 이상의 갈등이 복잡하게 얽혀서 전개되는 복합 구성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
- ⑤ 주인공은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주체로서, 작가가 표현하려는 바를 대신 전달하는 대리인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

1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의 서술자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1점]

<보 기>

소설에서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인물을 '서술자'라고 한다. 서술자는 이야기 속의 인물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 주변 인물이 되어 사건을 관찰하느냐, ㉡ 이야기 속 서술자가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느냐에 따라 동일한 사건도 달리 전달될 수 있다.

- ① 윗글의 서술자는 ㉡에 해당하며, '황수진'의 면모를 그와의 만남이나 일화 등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
- ② 윗글의 서술자는 ㉡에 해당하며, '황수진'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로 대하고 있다. ✕
- ③ 윗글의 서술자는 ㉡에 해당하며, '황수진'을 비판적 태도로 바라보고 있다. ✕
- ④ 윗글의 서술자는 ㉡에 해당하며, '황수진'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평가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
- ⑤ 윗글의 서술자는 ㉡에 해당하며, '황수진'이 처한 현실을 통해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14. 윗글에 나타난 서술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2점]

- ① 상대방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반응과 반대하는 반응을 명확히 구분하며 대답하고 있다. ✕
- ② 상대방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지며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
- ③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현하며 어리석게 보이려 말을 더듬으며 표현하고 있다. ✕
- ④ 상대방의 사소한 질문에도 일일이 대꾸하고 이유를 물어보는 등 성의 있는 태도로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 ✕
- ⑤ 상대방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성찰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질문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

15.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9점]

- ① '성북동'은 '서울'이나 '대치'와 대비되는 공간으로 시골의 정취를 느끼게 하는 곳이겠군. ○
- ② '개'는 주인공이 신문 배달하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로 볼 수 있겠군. ○
- ③ '삼 원'은 주인공이 서술자를 긍정적인 태도로 바라보고 도움을 주려는 마음을 표현하는 소재로 볼 수 있겠군. ✕
- ④ '참외 세 개'를 통해 주인공이 서술자에 대해 가지는 고마움을 짐작할 수 있겠군. ○
- ⑤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통해서 서술자가 주인공의 순박한 마음씨에 연민과 애정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

16. <보기>의 한자성어 중에서 유사한 의미를 지닌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4.0점]

<보 기>	
㉠ 간담상조(肝膽相照)	㉡ 동가홍상(同價紅裳)
㉢ 막역지우(莫逆之友)	㉣ 등화가친(燈火可親)
㉤ 막상막하(莫上莫下)	㉥ 견강부회(牽強附會)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17~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 겨울밤 거리에서 굴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굴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 주질 않은
가마니에 덮인 ㉢ 동사자가 다시 일어 죽을 때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 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홀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 함박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 슬픔의 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

(나)

우수 날 저녁
그 전날 저녁부터
오늘까지 연 닳새 간을
고향, 내 새벽 산 여울을
찰박대며 뛰어 건너는
이쁜 발자욱 소리 하날
듣고 지내었더니
그 새끼발가락 하날
가만가만 만지작일 수도 있었더니
나 실로 정결한 말쑥만 고를 수 있었더니
그가 왔다. 진술 속곳을 갈아입고
그가 왔다.
이른 아침, 난 그를 위해 담장으로 내려가고
따뜻한 달걀
두 알을 집어내었다.
경칩이 멀지 않다 하였다.

- 정진규, 「따뜻한 달걀」 -

(다)

밥물 눈금을 찾지 못해 질거나 된 밥을 먹는 날들이 있더니
이제는 그도 좀 익숙해져서 손마디나 손등,
손가락 주름을 눈금으로 쓸 줄도 알게 되었다
춤추는 손등 주름 따라 밥맛을 조금씩 달리해본다
손등 중앙까지 올라온 수위를 중지의 마디를 따라 오르내리다보면
물꼬를 트기도 하고 막기도 하면서
눈에 물을 보려 가던 할아버지 생각도 나고,
저녁때가 되면 한 끼라도 아껴보자
친구 집에 마실을 가던 소년의 저녁도 떠오른다
한 그릇으로 두 그릇 세 그릇이 되어라 밥국을 끓이던 문현동
가난한 지붕들이 내 손가락 마디에는 있다
일찍 철이 들어서 슬픈 컵속으로
봉지쌀 탈탈 터는 소리라도 들려올 듯,
얼굴보다 먼저 늙은 손이긴 해도
전기밥솥에는 없는 눈금을 내 손은 가졌다

- 손택수, 「밥물 눈금」 -

17.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8점]

- ① (가)~(다)는 모두 시적 화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
② (가)~(다)는 모두 이미지를 강하게 대비시키며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다)는 모두 완결된 문장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다)는 모두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며 시상을 전개하는 부분이 있다. ○
⑤ (나), (다)와 달리 (가)는 청자의 행위와 태도가 시상의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 6

18. (가)의 청자가 <보기>의 시를 창작했다고 가정할 때, 고려했을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5점]

〈보 기〉

나는 그들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들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들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 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운인가

- ① (가)에는 없는 의문형의 문장을 사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해야겠어. ○
② (가)의 화자 덕분에 알게 된 '슬픔'의 의미를 '그늘'이라는 단어로 표현해 보아야겠어. ○
③ (가)의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이 의미하는 것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로 표현해야겠어.
④ (가)에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과 '기쁨'의 진정한 의미를 대립적 시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겠어.
⑤ (가)의 화자가 '눈 그친 눈길'을 '함께 걷겠다'고 한 것을 타인의 '눈물을 닦아 주는' 행위로 표현해야겠어.

19.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0점]

- ① (가)와 (나)는 모두 동일한 시간을 배경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X
② (가)와 (나)는 모두 계절을 떠올리게 하는 시어들이 사용되었다. X
③ (가)와 (나)는 모두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다.
④ (가)는 상황의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나)는 상황의 변화 원인을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X
⑤ 촉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가)는 시적 대상의 정서를 드러내고, (나)는 시적 대상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

20. (가)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2점]

- ① (가)가 시적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의 진술을 하고 있다면, (다)는 상황에 대해 자기 고백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② (가)가 정서를 인격화하여 현실을 인식하게 하고 있다면, (다)는 정서를 신체와 결합시켜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고 있다. ○
③ (가)가 시적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시적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다면, (다)는 시적 화자의 정서를 감각화하여 시적 의미를 관념화하고 있다. ○
④ (가)가 모순적 상황 진술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면, (다)는 도구화된 신체가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통해 시적 의미를 구축하고 있다. ○
⑤ (가)가 현재의 부정적 모습에 주목하여 긍정적 미래를 지향하고 있다면, (다)는 과거의 부정적 상황을 현재의 일상적 행위와 연결하여 현재를 긍정하고 있다. ○

8.8

주제
주제

21. 시적 맥락을 중심으로 시어를 이해할 때, (가)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3점]

- ① ㉠: '겨울', '밤', '거리'가 연상시키는 의미를 고려해 볼 때 부정적 의미가 중첩되어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군.
② ㉡: '슬픔'의 '얼굴'로 보아야 이웃의 고통을 자신의 것과 동등하게 보고,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을 '평등'하다고 표현한 것이겠군. ○
③ ㉢: 거리에서 얼어 죽을 만큼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무관심 속에 방치된 현실을 역설적으로 강조한 표현이겠군.
④ ㉣: '멈추겠다'는 서술어로 미루어 볼 때, 시적 화자는 '함박눈'을 이 세상에 어려움을 주는 부정적인 대상으로 보고 있군.
⑤ ㉤: 화자가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는 점에 주목해 보면, 서사를 가지는 '슬픔만이 힘을 가진다는 의미로 해석해야겠군.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사개 틀린 고풍(古風)의 뿔마루에 없는 듯이 앉아
아직 떠오를 기척도 없는 달을 기다린다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뜻 없이

이제 저 감나무 그림자가
사뿐 한 치씩 올라오고
이 마루 위에 빛깔의 방석이
보시시 깔리우면

나는 내 하나인 외론 벗
가냘픈 내 그림자와
말없이 몸짓 없이 서로 맞대고 있으려니
이 밤 읊기는 발짓이나 들려오리라

- 김영랑, 「사개 틀린 고풍의 뿔마루에」 -

(나)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
푸른 바다가 아니지
마음속에 푸른 바다의
고래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
청년이 아니지
푸른 바다가 고래를 위하여
푸르다는 걸 아직 모르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모르지

고래도 가끔 수평선 위로 치솟아올라
별을 바라본다
나도 가끔 내 마음속의 고래를 위하여
밤하늘 ㉠ 별들을 바라본다

- 정호승, 「고래를 위하여」 -

(다)

밭둑에서 나는 바람과 놀고
할머니는 메밀밭에서
메밀을 꺾고 계셨습니다.

늦여름의 하늘빛이 메밀꽃 위에 빛나고
메밀꽃 사이사이로 할머니는 가끔
나와 바람의 장난을 살피셨습니다.

해마다 밭둑에서 자라고
아주 커서도 덜 자란 나는
늘 그러했습니다만

할머니는 저승으로 가버리시고
나도 벌써 몇 년인가
그 일은 까맣게 잊어버린 후

오늘 저녁 명석을 펴고
마당에 누우니

온 하늘 가득
㉡ 별로 피어 있는 어릴 적 메밀꽃
할머니는 나를 두고 메밀밭만 저승까지 가져가시어
날마다 저녁이면 메밀밭을 매시며
메밀꽃 사이사이로 나를 살피고 계셨습니다.

- 이성선, 「고향의 천정(天井) 1」 -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8점]

- ㉠ 서어의 반복을 통해 작품 전체에 질서를 부여하고 있다.
- ㉡ 화자의 체험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X
- ㉢ 네 마디의 호흡으로 끊어 읽어지도록 시구를 배치하고 있다. X
- ㉣ 어조 변화를 통해 화자의 대상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X
- ㉤ 특정 공간에서 연상된 이미지를 중심으로 시적 의미를 구축하고 있다. X

23. ㉠과 ㉡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4점]

- ㉠ ㉠과 ㉡을 통해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군. X
- ㉡ ㉠과 ㉡은 시적 화자에게 미래지향적 삶의 의미를 재확인하게 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겠군. X
- ㉢ ㉠이 화자의 그림음이 투영된 대상이라면, ㉡은 화자의 소망이 투영된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군.
- ㉣ ㉠이 화자의 무지를 깨우쳐 주는 존재라면, ㉡은 화자의 내적 상실감을 회복시켜 주는 존재로 볼 수 있겠군.
- ㉤ ㉠이 화자가 추구하는 내면적 가치를 의미한다면, ㉡은 화자가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로 볼 수 있겠군.

24.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1점]

<보기>

이 시는 시인이 여러 어려움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해 인생의 선배로서 자신의 깨달음과 당부를 담아 쓴 시이다. 시의 화자는 청년들이 가져야 하는 꿈과 목표, 희망과 포부, 이상 등을 푸른 바다에 사는 고래로 나타내고 있으며, 청년들이 마음속의 푸른 바다에 고래를 키워야 하며, 그런 고래를 키우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표현하고 있다.

- ㉠ 제목과 동일한 어구를 반복하여 주제를 강화하고 있군. O
- ㉡ 선택한 색채 이미지의 반복이 시인이 설정한 예상 독자를 연상하게 하는군. O
- ㉢ 시상 전개 과정에서 '고래'라는 구체적 대상이 다양한 추상적 의미를 연상하게 하는군. O
- ㉣ 부정적 서술어를 사용하여 이 시대 청년들이 처한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비판하고 있군.
- ㉤ 자신이 깨달은 인생의 교훈을 청년들에게 전해 주고자 하는 시인의 창작 동기가 느껴지는군. O

* 확인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문제지에 대한 저작권은 동태고등학교에 있습니다.